

( 인간이 배제된 숲의 사계, 숲의 정령에 바치는 헌사의 시편 )

《숲의 생활사》 저자 차윤정 인터뷰



금슬 좋은 부부가 서로 닮듯, 15년 동안 숲과 함께 한 산림환경학 박사 차윤정(39) 씨는 숲을 닮았다.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만난 그는 봄 숲, 연둣빛으로 싱그러운 신갈나무 군락을 보는 듯 생기가 넘쳤다. 숲을 걷는 그의 걸음은 그러나 조심스러웠는데, 갑작스런 객의 방문으로 숲의 정령이 노여워할까, 허락을 구하는 마음이 깃든 걸음걸이란다. 《숲의 생활사》에서 그는 “숲의 정령들이여, 당신으로 난 문을 열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방문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큰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숲에 들어설 때의 마음가짐을 적고 있다.



“부산에서 어린 날을 보냈습니다. 바다가 유명한 도시임에도 제가 살던 곳은 늘 산 몇 번지라는 곳이었지요. 재개발 때문에 자주 이사를 해야 했는데, 옮겨가는 곳마다 금정산 만덕산 등의 산이 있었습니다. 《툼 소녀의 모험》을 즐겨 읽던 때라, 숲속에 아지트를 만들어 친구들이랑 비밀스런 시간을 즐겼지요. 할머니를 따라 갖은 먹거리를 부지런히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인지, 자라서도 자연 숲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졸업, 산림환경학 박사학위 수여, 숲 탐방교육 전문강사,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 운영위원 등 그의 이력은 숲에서 시작되고 숲으로 끝난다. 아니, 끝난다는 표현은 적확하지 않다. 녹음(綠陰)을 더해가고 있다. 그는 녹음을 바탕으로 톰툰이 건실한 과실을 우리에게 내보이기도 했다. 숲의 새로운 주인공인 신갈나무를 통해 식물세계의 생존을 보여준 《신갈나무 투쟁기》, 남도에서 장백산까지 우리 숲의 아름다움을 밝힌 《우리 숲 산책》, 식물의 삶이 사람들의 삶과 다를 것 없음을 보여준 《식물은 왜 바흐를 좋아할까》 등의 책이 그것이다.



“《숲의 생활사》는 2002년부터 준비한 책입니다. 2003년에 낸 《우리 숲 산책》보다 먼저 나왔어야 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갈래를 나누고, 다 식물 빛꽃 풍요 걱정 풍경 등의 테마를 잡고 원고를 묶다보니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숲 또한 살아 있는 생명체라 시간에 따른 사멸(死滅)을 드러내고 싶었지요. 연구를 위해 시료를 채집할 때면 '미안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너희들 삶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밝힐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오면 연구가 술술 진행되지요. 진실을 들려주겠다는 제 의지에 숲이 힘을 실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숲의 진실, 사실 조금 무겁다. 그러나 《숲의 생활사》를 보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는 책의 미덕에 감사하게 된다. 그는 인간의

숲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공존하는 숲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숲'이라 읊조렸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다. 봄별을 더 얻기 위한 치열한 자리싸움, 큰 나무들의 잎이 빛을 차단하기 전에 얼른 피었다 사라지는 운명을 택하는 식물도 있다. 여름날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세력 재편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도 인간에게나 아름다운 것일 뿐, 온기를 지키고 양분을 흡수기 위한 생존전략일 뿐이다. 생사의 갈림길인 겨울, 숲의 생명들에게 자존심이나 명예는 사치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어린 나무들은 사실상 땅의 배반으로 삶의 희망을 접어야 한다"는 문장을 읽고 있으면 눈물겹다. 이처럼 《숲의 생활사》는 인간이 배제된 숲의 사계, 그 진실을 가감 없이 펼쳐 보인다.



“숲은 세계 무심한 정인(精人)입니다. 비단 지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하죠. 많은 날 숲에 들어섰지만, 숲에서는 참 외롭습니다. 《바보 이반의 산 이야기》에서 은둔자들의 유토피아로 숲이 묘사되는데, 인간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한 숲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섭섭했습니다. 한시라도 마음을 놓아 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긴장으로 자생하고 확장되는 공간이 숲입니다. 사람이 지켜줬다 한들, ‘그래 고맙다, 너희에게 베풀겠다’는 숲의 말을 언감생심 기대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숲이 희망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는 숲을 생각하면 기운이 나고, 눈여겨봐주지 않는 숲으로 들어가면,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까닭입니다.”

《숲의 생활사》의 또 다른 미덕은 ‘숲에 대한 헌사’에 있다. 그는 헌사에 있어 시적 수사의 효용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펜을 쥐어 들고 밑줄을 긋고 싶을 만큼 숲을 말하는 그의 문장은 아름답다. 숲의 진실을 들려주는 그의 기본자세는 ‘냉정’이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그의 문장은 ‘열정’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 이 독특한 구조는 책의 마지막까지 독자를 단번에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다. 모름지기 대상에 대한 시적 수사는 달관을 뜻함이요 헌사의 의미를 지니는데, 오랜 시간 숲과 함께 하면 절로 시인이 되는 것인

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갈래 ‘봄’에서 눈에 띄는 문장들을 가려 연과 행을 맞춰보면 헌사의 시 한 편이 완성된다.



“봄은 허물을 벗듯 갑자기 다가온다 // 지상의 눈들이 아직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때에도 / 섬세하고 부드러운 뿌리털이 차가운 땅을 헤집고 / 시린 물을 빨아 들여 지상으로 옮겨준다 // 버드나무 즐기는 축축하게 배어 있는 물기로 한동안 잎보다 싱그럽다 / 줄기 속은 더욱 초록빛이다 // 일어나라, 봄이 왔다. 경쟁자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헌사의 시편들에 기대고 있으면, 숲의 정령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슬그머니 생겨난다. 숲을 걷는 그의 걸음걸이가 조심스럽듯, 책장을 넘기는 손길도 조심스럽다. 숲과 저자와 독자의 완벽한 합일이다.

한편 그는 내년이면 미국으로 떠난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숲과 헤어진다는 것이 몹시 섭섭하다. 그러나 더 큰 숲을 들어서는 설렘도 있다. 록키산과 같은 사람을 질식시켜 버릴 만한 거대한 숲을 들어서고 싶은 것은 그의 오랜 소망이기도 하다. 더욱 짙은 녹음으로 그곳에서 얻은 건실한 과실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마흔 줄에 들어서는 때인 만큼, 어우러져 사는 숲의 모습을 편안하게 보고 싶다”라고 그는 안목의 변화를 전했다.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차윤정 씨의 정직한 나이테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